



안 명 국

1

《광명이가 돌아왔다면서...》

전홍철은 사무실문을 여는것과 동시에 큰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온몸을 휘감았던 기쁨도 한순간...

방을 둘러보던 홍철은 사무탁을 마주하고앉아 일을 보고있던 두 녀인이 자리에서 일어서자 방금전까지의 환희가 발밑으로 쭉- 빠져나가버리는듯 한 허탈감을 느꼈다.

이럴수가 있는가.

내가 잘못들었는가?

아니, 아니야. 그럴수 없어...

출장지에서 돌아오다 퇴근하는 공정원을 만났을 때 그는 분명 광명이가 기업소마당에 있다라는 말을 했다.

《광명이가 왔다는데 보지 못했소?》

홍철은 누구에게라 없이 물었다.

《지배인동지, 광명동무가 왔던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고개를 숙이고있던 생산부원 서경숙이 머리를 들며 말했다.

《그러니 네가 그를 둘러보냈다 그 말이냐?》

《예.》

서경숙은 기업소가 사갱굴진을 앞에 둔 어려운 시기에 굴진중대장이라는 사람이 사표를 내고 떠나갔던 일이 가슴아프게 추억되어 랭담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쩌면... 다른 사람도 아닌 내가...》

전홍철은 그의 말을 선뜻 믿기가 어려운듯 한 참이나 보조개가 패인 그의 등실한 얼굴을 쳐다보았다.

이 지배인이 광명이가 돌아오길 얼마나 기다렸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내가 어쩌면...

마음이 심란하여 의자에 맥없이 주저앉고말았다.

《전 다만...》

그처럼 괴로와하는 지배인을 마주보기가 따분해난 서경숙이 혼자소리로 중얼거렸다.

《됐다. 간걸 어쩌겠니. 그가 이제 찾아오면 다신 그러지 말아라.》

홍철은 당부하듯 말했다.

《지배인동지, 광명동무를 돌려보내는데는 저도 찬성했습니다. 그가 지배인동지의 속을 얼마나 태웠습니까. 그가 떠나던 날 지배인동지가 하던 말을 우린 지금도 잊지 않고있습니다. (사람이 죽어도 배고 죽어야 할것이 있다. 그것은 의리와 량심이다.) 광명동무를 떠나보내고 것처럼 괴로와하던 지배인동지였기에... 사실 광명동무가 기업소를 떠나지 않고 굴진중대장사업을 계속 했더라면 사갱굴진이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을수도 있었고 또 경숙동무 애인도...》

회개원 최영숙이 지배인앞으로 바투 다가서며 위로하듯 변명했다.

그때, 광명이가 있었다면 사갱굴진이 더 빨리 끝을 봤을지도 모르지. 그리고 조카사위감이었던 경숙이 애인을 뜻밖에 잃는 일이 생기지 않았을수도 있었고.

오순길이가, 참 아까운 사람을 잃었어.

말수더구가 적고 일밖에 모르던 사람, 그래서 것처럼 눈이 높다던 경숙이가 처녀의 순정을 바친것이 아니었던가.

하지만 그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할 문제도 아닌 듯싶었다.

그것이 어쩌 광명이가 기업소를 떠난것으로 해서

빛어진 결과라고만 할 수 있으랴.

전홍철은 피로운 숨을 내뿜며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방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떠돌았다.

전자벽시계의 초침소리만이 세사람의 침묵에 항변하듯 자기가 맡은 소임을 열심히 수행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조심스레 책장을 번지며 앉아있는 두 녀인을 이윽히 바라보는 홍철의 눈앞에는 광명이를 처음 만나던 때의 일이 느닷없이 떠올랐다.

홍철은 이들에게 우리 탄광이 어떻게 오늘까지 자기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었는지 이야기해 주어야 함을 깨달았다.

광명이와 같은 탄부들의 피타는 노력이 없었다면 부흥하는 오늘의 탄광을 생각조차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있는 홍철이었다.

배천영에군인식료공장에서 자재과 책임부원으로 사업하던 전홍철이 기업소에 연료를 보장하는 탄광 지배인으로 임명되어 황해남도에서 여기 먼 샷갯봉 기슭으로 온것은 20여년전 가을이었다.

탄광에 도착한 홍철은 부임인사에 앞서 탄광실태를 료해하기 위해 막장으로 들어갔다.

막장상대는 좋지 못했다.

이 탄광이 어떤 탄광인가?

어버이수령님께서 몸소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주시어 창설된 탄광이 아닌가.

발부리에 걸채는 버력을 차며 막장의 구석구석까지 다 돌아보았다.

막장들에 널려져있는 동발들이 탄광사람들의 어설픈 마음을 엿보게 했다.

홍철은 동발들을 하나하나 정리해나갔다.

《거 동발들을 다치는 사람이 누구요?》

고개를 들어 그쪽을 응시했다.

안전등빛을 번쩍이며 한사람이 홍철에게로 걸어왔다.

《그 동발은 왜 다치는거요?》

스무살이 넘었을가 하는 애리애리한 청년이었다.

《동발이 좀...》

《홍, 갱이 이렇게 되니 나중엔 별 사람들이 다 와서 성화네. 여기 사람들은 땅속으로 찾아들었는가 하는 모양이지.》

청년은 방금전에도 그런 사람이 왔던것을 쫓아보낸듯 혀를 차며 풀풀거렸다.

《동발이 탐나면 판데나 가보라요. 여긴 주인이 있소.》

통명스럽게 한마디 뱉고난 청년은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동발 한대를 어깨에 메더니 막장쪽으로 씨엉씨엉 걸어갔다.

말투는 몰풍스러웠지만 청년이 여간 미덥게 여겨지지 않았다.

홍철은 머리를 기웃거리다가 그의 뒤를 따랐다.

막장이 끝나는 곳에 동발을 떨구고난 청년은 뒤따라 들어온 홍철을 피끗 보더니 신경질적으로 돌아섰다.

《안된다면 안되는줄 알라요. 욕심도 분수가 있어야지. 거긴 량심도 없어요. 이거야말로 물에 빠진 사람 꼭뒤 눌러놓는 격이 아니고 뭐예요?》

《미안하오, 동무.》

《나한테 미안할게 뭐가 있어요.》

할말을 다했다는듯 청년은 동발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동무, 그럼 하나 묻지요.》

《물울것이 있으면 빨리 물으라요. 난 일을 해야겠어요.》

《동문 이 탄광사람이요?》

《밥먹고 할일이 없어서 남의 탄광에 와서 일을 해주겠소.》

말투는 여전히 투박했다.

그러나 홍철은 자기 기업소에 대한 애착심으로 가득찬 청년의 성정을 기쁜 마음으로 읽었다.

《고맙소. 동무, 이거 인사가 늦어서 안됐소. 내 새로 온 지배인이요.》

《예?! 그럼 배천에서...》

청년의 눈빛이 햇빛을 받은 별처럼 반짝이었다.

홍철은 미소를 머금은채 고개를 끄덕였다.

《야, 그럼 그 말부터 먼저 하실게지.》

청년은 방금전까지의 몰풍스러웠던 행동이 미안한듯 얼굴을 붉혔다.

《동무가 내게 그 말을 할 짬을 줬다구... 우리 여기 좀 앉자구.》

동발목우에 자리를 잡은 홍철은 청년의 손을 잡아끌며 웃었다.

《막장에서 처음 사귄 친근데 통성이나 하지요. 난 전홍철이라고 하오.》

청년은 리광명이라고 자기 소개를 했다.

《그런데 다들 어디 가고 혼자서 막장을 지키오?》

《갈 사람은 가래지요. 하지만 우린 이렇게 새 지배인동지가 오기를 기다렸습시다.》

그러니 다들 떠나갈 생각을 하고있단 말이지.

가슴이 답답하여 목단추를 열어제긴 홍철은 전지 불빛에 드러난 검스레한 암석을 바라보며 말했다.

《광명동무, 한번 솔직히 말해보오. 그래 탄광이 정말 전망이 없소?》

안타까움이 실린 홍철의 얼굴을 쳐다보던 광명이 고개를 숙였다.

《글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전 그 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털어놓고 말해서 이 샷갯봉전체가 검은금을 한 가득 품고있는 보물봉인데 아무렴 탄이 없기야 하겠습니까. 이게 다 패배주의에 물젼은 사람들의 나

약한 한숨소리때문이지요. 지배인동지야 그런 사람이 아니겠지요?»

《영예군인들은 패배주의란 말을 모르는 사람들이요.》

《그럼 지배인동진 영예군인입니까?»

홍철은 눈가에 미소를 그리며 머리를 끄덕였다.

그의 눈앞에는 농장사로칭(당시) 부위원장으로 사업하다가 인민군대에 입대하였던 오래전의 일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완강성을 천성처럼 지니고있는 그를 두고 전우들은 앞으로 군관학교를 졸업하고 꼭 훌륭한 군사지휘관이 되라고 당부하곤 했다.

그러나 홍철은 전우들과의 약속을 지킬수가 없었다.

임무수행중 뜻하지 않은 정황속에서 한몸을 내대어 동지들을 구원한 그는 중상을 입었던것이다.

제대후 홍철은 영예군인식료공장에 배치되었다.

공장에는 전화의 불길을 헤쳐온 전쟁로병들이 많았다.

그들과 함께 일하면서 홍철은 영예군인들이란 어떤 사람들인가를 다시금 체험하였다.

그들은 강철같은 의지와 완강성의 소유자들이었다.

그들에게서 생이란 무엇인가를 다시금 터득하며 홍철은 자재과 책임부원을 거쳐 오늘은 탄광지배인으로서까지 성장하게 되었던것이다...

《그러니 탄은 얼마든지 있다 그 말이겠소?»

《있다뿐이겠습니까. 있어도 무진장하지요. 그런데 야단은 야단입니다. 굴진을 하자니 변변한 설비가 없어서... 그러니 패배주의자들이 머리를 들게 됐지요.》

《광명동무, 고맙소. 내 힘껏 뛰겠으니 우리 힘을 합쳐 탄광을 일떠세워보지요.》

홍철의 말에서 힘을 얻은 광명은 지금의 암질상태며 굴진방향에 대한 자기의 견해를 피력했다.

그러니 탄광을 살릴수 있는 기본열쇠는 정신력이란 말이지.

광명이가 고마왔다.

며칠후 홍철은 자기의 립장을 발표했다.

청년들로 굴진소대가 새롭게 조직되고 리광명이 굴진소대장으로 임명되었다.

공정별계획들도 면밀하게 세워졌다.

조건은 여전히 불리했다.

탄광에서 먼곳에 있는 기업소에 도움을 청할수도 없었다.

홍철은 천성청년탄광 일군들의 방조를 받기로 결심했다.

그들과 무릎을 마주하고앉아 기업소의 실패를 통보하고 의견을 교환하였다.

홍철의 이야기를 진지한 표정으로 듣고난 책임일

군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 수령님께서 것처럼 아끼시는 영예군인들을 돕는 일인데 우리 탄광의 굴진중대를 보내서 굴진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설비쥬이야 도와주지 못하겠습니까.》

책임일군이 고마왔다.

드디어 굴진이 시작되었다.

《지배인동지! 이제 됐습니다.》

착암기에 몸을 맡긴 광명이 눈물이 글썽해서 환성을 터쳤다.

탄광은 이렇게 다시금 자기의 생기를 되찾게 되었던것이다.

《동무들은 나의 사업능력이 남달라서 기업소일이 잘되는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모르고 하는 소리요. 우리 탄광이 오늘과 같이 발전해올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광명과 같이 막장에서 당을 받들어온 탄부들이 있었기때문입니다. 그네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탄광도 존재하지 못했을것이며 나라의 영웅으로까지 성장한 이 전홍철이도 없었을거요. 그런데 그가 일시적인 마음의 동요를 이겨내지 못해 기업소를 떠났다고 해서 배척하면 내가 무슨 일군이고 영웅이겠소.》

전홍철은 걱정으로 심장이 뚫어올라 더 말을 잊지 못했다.

《지배인동지, 저희들의 생각이 짧았습니다.》

서경숙이 물기가 축축히 배인 눈을 들어 홍철을 바라보며 자책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 심정을 이해한다니 됐다. 경숙아, 너도 이제 기업소의 전반적인 생산을 보는 일군의 한사람인데 일군이라면 응당 바다와도 같은 넓은 도량과 인덕을 지니고있어야 한다. 너도 언젠가 말했지. 여기 와서 생활하면서 보니 고향의 바다가 그리울 때가 많다고... 고향의 바다가 그림다는 생각은 하면서도 그 바다가 얼마나 도량이 넓은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봤나? 자기의 품으로 찾아드는 강물이 실사 흐린 물이래도 절대로 탓하지 않는것이 바로 바다의 성품이 아니냐. 일군이라면 응당 그 바다처럼 웅심깊은 마음을 지닐줄 알아야 한단다. 내 말의 뜻을 알겠느냐?》

《예.》

《오늘은 이만하자. 참, 래일 수철이 결혼식준비는 어떻게 됐소?》

홍철은 회계원을 바라보며 물었다.

《예, 래일 아침까지면 모든 준비가 끝나게 됩니다.》

《그럼 됐구만. 내가 출장을 떠난 사이 정말 수고들이 많았소. 이제 날도 어두워졌는데 어서 집어들 들어가보오.》

두 녀인을 바래우고난 홍철은 오래도록 창가에 서있었다.

홍철은 몸은 비록 체소하지만 굴할줄 모르는 정열로 굴진을 내밀어 예비채탄장들을 마련해놓곤 하던 리광명의 가름한 얼굴을 그려보며 그와 끝없는 마음속 대화를 나누었다.

그가 사표를 내던 그때는 정말이지 모든것이 끝나버리는것 같이 어려운 시기였지.

그날 그에게 해주던 말이 생각났다.

《물론 우리가 지금 시작하는 사갱굴진이 언제 끝나겠는지, 과연 그 끝을 보게 되겠는지는 장담하기가 어렵구나. 그러나 한가지 명백한것은 우린 어떤 일이 있어도 사갱굴진을 해야 하며 하면 반드시 새 탄발을 만날수 있다는거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천 지배인동지와 함께라면 팡속끝이라도 갈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조건에서는…》

《난 네가 그렇게 대가 약한 사람인지는 여태 몰랐구나. 그래도 한때는 내가 주저않을세라 이 샷갓봉지구가 온통 석탄으로 뒤덮여있는데 뭘 주저할게 있느냐고 하며 나에게 힘을 주던 네가 아니냐. 솔직한 말로 난 난관이 앞을 막아설 때마다 네가 하던 말을 생각하며 마음을 가다듬곤 했다. 눈은 현실을 보지만 신념은 미래를 본다는 전쟁로병들의 말이 옳았다고 말이야. 그런데 너에게서 나약한 소리를 듣게 되니 어쩐지 섭섭하구나.》

…

이렇게 떠나간 광명이였다.

홍철은 오늘 광명이를 만나지 않으면 래일은 늦을것만 같아 그의 집으로 향했다.

검푸른 하늘에서는 조각달이 구름장사이를 헤엄치고있었다.

희미한 그림자를 드리워놓는 달빛을 밟으며 걸느라니 어려우던 사갱굴진의 나날들이 떠올랐다.

그 잊을수 없는 추억은 언제나 광명이의 후임으로 임명된 경숙이의 애인 오순길에 대한 추억으로 이어지곤 했다.

경숙이가 영예군인의 몸으로 사갱굴진을 하느라 수고하는 홍철을 곁에서 돌봐주라는 공장당위원의 파업을 받고 탄광으로 온지 얼마 안되어 탄광으로 파견되어온 오순길은 제대군인답게 일을 결싸게 해제겼다.

막장경험이 부족한 그는 퇴근후면 로란부들을 찾아다녔다.

그의 이런 정열에 감복한 서경숙이 이웃탄광의 능력있는 기사를 초빙하여 막장상태에 따르는 공정도를 작성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익혀주는 과정에 그들은 어느덧 자별한 사이로 되었다.

홍철은 그것이 무엇보다 기뻐다.

어느날 홍철은 경숙을 따로 만난 자리에서 조용

히 물었다.

《그래, 네 보기엔 그 청년이 어떠냐?》

이모부가 무엇을 녀두에 두고 묻는지 미처 느끼지 못한 서경숙은 까만 눈섭을 깜박이며 홍철을 쳐다보았다.

《난 그에게 굴진중대장을 맡겼으면 하는데 네 생각은 어떤가 해서 묻는거다.》

《어마나, 그런데 그걸 왜 나에게 물어요? 내가 오순길동무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제서야 이모부의 의도를 감축한 경숙은 얼굴을 발그레 물들이며 아닌보살했다.

《이모부 눈은 속이지 못한다. 그래 네 보기엔 그가 어떠냐?》

《모르겠어요.》

경숙은 깔깔 웃음을 터쳤다.

사실 경숙은 오순길의 제대군인다운 성품에는 감복하면서도 이왕이면 남자답게 좀 잘 생길게지 하는 아쉬운 마음을 금치 못하고있었던것이다.

《남자라는데 그렇지. 어떻게 다 너처럼 굵게만 생기겠니. 남자란 그렇게 울퉁불퉁한 맛도 있어야 하는거야. 이모부의 경험에 의하면 지나치게 멋을 부리기를 좋아하는 사내들은 그 값을 하더라.》

경숙의 마음을 들여다본 홍철은 년장자답게 너그러이 말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인물이야 어지간히 있어야지… 난 그런 사람 마음에 없어요.》

홍철이 극성을 부릴수록 경숙은 장난치기를 좋아하는 소녀처럼 대답했다.

《그럼 굴진중대장으로 임명하는데는 찬성하겠지?》

서경숙은 입술을 감빨다가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다.

《앞으로 두고봐라. 저런 총각 마다하다 한생 후회하지 않나.》

조카딸의 마음을 든장질해놓고보니 마음이 별스레 흥그러워졌다.

홍철은 머지않아 그들의 마음이 하나로 뭉것이라는것을 믿어의심치 않았다.

하면서도 영숙에게 이들의 사랑이 하루빨리 무르익도록 곁에서 마음을 써달라고 부탁하는것을 잊지 않았다. …

고요가 깃든 탄광마을의 집집들에서 하나, 둘 불빛이 사라지고있었다.

그러나 광명이네 집 창가에서는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안혜의 애모쁜 마음인양 밝은 불빛이 흘러나오고있었다.

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다가 홍철을 알아보고 당황해서 몸둘바를 몰라 서성대던 안주인이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웃을 찾아입는지 서두르는 소리가 났다.

광명이가 뛰어나왔다.

《지배인동지가 이 밤중에 어떻게… 어서 들어 오십시오.》

반가움이 짙은 광명의 목소리는 죄의식으로 가늘게 떨렸다.

《오늘 날 찾아왔었다면서?》

안주인이 가져다놓은 초물방석을 밀어놓고 앉은 홍철은 그사이 별로 달라진것이 없는 방안을 둘러 보며 물었다.

방금전까지 주인내외간에 상서롭지 못한 일이라도 있던듯 방안에는 미처 빠지지 못한 담배연기가 자욱했다.

《예, 그런데 지배인동지가 출장가셨다기에…》
리광명은 몸을 웅송그린채 대답했다.

《그때, 기업소에 다시 나오고싶어서 왔겠지?》
광명이 고개를 들었다.

지배인이 무엇때문에 이에 대해 묻는가 하는 의혹이 그의 얼굴에 짙게 덮여있었다.

《임자도 이젠 퍼그나 소심해졌구만. 한때는 굴진에서 두번째 자리에 서라면 섭섭해할만큼 패기에 넘치던 왕년의 굴진중대장이.》

《지배인동지, 절 많이 욕했지요? 그런데도 저를 용서해줄수 있습니까?》

《용서?! 용서라…》

전홍철은 머리를 들어 어둠이 깃든 창밖을 내다 보았다.

광명이가 떠난 다음에 있는 가지가지의 일들이 눈앞에 한꺼번에 안겨들었다. 힘들고 어려웠던 나날들이었다.

《광명야, 너도 알다싶이 탄부란 속이 대범하고 도량이 넓은 사람들이 아니냐. 지난 기간에 기업소를 위해 바친 네 마음을 우린 잊지 않고있다. 그러니 다른 생각일랑 말고 래일부터 다시 나오도록 해라.》

《고맙습니다. 지배인동지!》

물기가 축축히 배인 눈길을 들어 홍철을 쳐다보며 광명이 뇌였다.

《참, 내가 잊을번 했구나. 래일 수철이 결혼식이 있다. 부모가 없이 자란 그 애 결혼식을 기업소에서 차려주기로 했으니 너랑 참가하면 수철이랑 얼마나 좋아하겠니.》

홍철은 래일 드디어 새 가정을 못게 되는 문수철의 모습이 떠올라 빙그레 웃음을 지었다.

《수철이가 말입니까, 그가 장갈 간단 말입니까?》

자기의 손에서 굴진이 무엇인지 배우며 자란 수철이, 그가 굴진중대장을 한다는 말을 들은것이 오늘 아침이었는데 래일 결혼식상을 받는다.

결국 생활은 이 리광명이라는 존재가 없이도 전진했고 그것도 부단한 발전의 길을 걸으며 멀리도 흘러왔던것이다.

수철이랑 그렇게 자라도록 나는 기업소를 떠난

뒤 무엇을 위해 뛰어다녔던가?

거세찬 대하에서 밀려난 거품같은 지난날이었다는 아픔이 가슴을 지졌다.

기슭으로 밀려나가지 말고 인생의 길을 함께 걸자고 먼곳까지 찾아와 타이르던 지배인의 모습이 밝혀와 광명은 눈물을 삼켰다.

《수철이 색시감은 어데 있습니까?》

광명이 물었다.

《자넨 잘 모를거야. 운영심이라고 권양기운전공으로 일하는 처년데 임자 처처럼 곱게 생기고 일썬씨도 얼마나 암팡진지 몰라. 그들의 사랑을 이어주느라고 회계원이랑 경숙이가 수고를 많이 했지.》

《경숙동무가요?》

지배인의 입에 서경숙의 이름이 오르자 광명은 몸을 흠칫 떨었다.

저녁에 지배인을 찾아갔을 때 기업소에 다시 들어오겠다니 량심을 가지고 하는 말인가고 야멸차게 내쫓던 경숙의 얼굴이 떠올랐던것이다.

《왜 오순길동무때문에 그러냐? 너무 마음쓰지말게. 경숙이도 자네가 돌아오는데 동의했네.》

《고맙습니다, 지배인동지!》

광명은 자기가 벌써 몇번이나 이 말을 했는지 의식하지 못하며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순길이는 막장을 구원하고 먼저 갔지만 그의 생은 우리 탄부들과 더불어 계속 이어지고있어. 난 광명이가 것처럼 살기를 바라네.》

《알겠습니다. 제 다시야 탄부의 량심을 저버리겠습니다.》

《탄부의 량심도 중요하지. 하지만 보다도 당에서 것처럼 아끼고 보살펴주는 영예군인들의 생활을 책임졌다는 자각을 잊지 않는것이 더 중요하지. 난 광명이가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리라고 믿는다. 눈서리를 이겨낸 꽃이 더 아름답다지 않느냐.》

《지배인동지, 제 꼭 지배인동지가 바라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오.》

저녁노을이 탄광마을을 물들이고있었다.

이름있는 화가의 붓끝이 닿은듯싶은 저녁노을은 그 장쾌한 열정을 한껏 펼치며 인상깊은 하루의 아름다움을 장식하고있었다.

문수철의 결혼식을 축하해주기 위해 모였던 종업원들이 돌아간지도 이속했다.

《지배인동지, 오늘 몹시 바쁜 시간을 보냈는데 이젠 좀 쉬십시오.》

최영숙이 창가에서 떨어질줄 모르고 서있는 홍철의 결으로 다가서며 말했다.

영예군인인 지배인의 건강을 두고 늘 원심을 쓰는 회계원이다.

《영숙동무, 오늘 우리 경숙이가 무슨 생각을 했을가?》

홍철이 창가에서 물러서며 물었다.

《지배인동지도 참...》

최영숙은 조카딸의 일을 두고 근심에 잠긴 지배인의 심정이 마쳐와 뒤말을 잊지 못했다.

《난 이런 날을 맞을 때마다 경숙이 생각으로 마음이 개운치 않아. 우리가 그때 오순길의 말만은 들어주지 말았어야 하는건데.》

《어찌겠습니까. 그때로서야 다른 방법이 없지 않았습니까.》

《아니, 모든게 다 내 탓이야. 그때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 내 잘못이 커.》

홍철은 경숙이를 그리도 열렬히 사랑했던 오순길에 대한 생각으로 하여 가슴이 미여지는것만 같았다.

경숙이의 말이라면 하늘의 별도 따울 오순길이었다.

경숙이네 약혼식날의 일이 느닷없이 떠올랐다.

그날 오순길은 결혼식날자를 정하려는 홍철에게 자기들의 결혼식만은 사갱굴진이 끝난 다음에 하게 해달라고 제기했다.

《그건 안돼요.》

영숙이 선잠으로 반대했다.

《왜 안된다는거예요?》

오순길이 발끈해서 따지듯 물었다.

《글쎄 안된다면 안되는줄 아세요. 이런 일에선 년장자의 말을 들어 손해보지 않아요.》

《회계원동무, 난 동무가 왜 그러는지 리해가 안되는구만.》

오순길이 고집을 부렸다.

《됐다. 이 기쁜 날 다름질은 무슨... 경숙아, 네 생각은 어떠냐?》

홍철이 경숙에게 눈길을 던지며 물었다.

《지배인동지, 전 순길동무의 말을 따르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고개를 수긋하고 한동안 말이 없던 경숙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렇게 되어 순길의 의견대로 결혼식을 사갱굴진이 끝난 다음에 하기로 약속이 지어졌다.

그런데 그것이 경숙에게 가슴아픈 상처를 남기게 될줄이야...

홍철은 그날에 하던 영숙의 말이 생각나 그를 바라보았다.

《왜 그렇게 보십니까?》

최영숙이 물었다.

《아니, 그저... 어떤 사람들은 우리 경숙이 눈이 지내 높다고 말을 했지만 우리 경숙이 사랑이야말로 그지없이 소박했어. 영숙동무도 그렇구. 사실은 나도 그랬지.》

《어마나, 지배인동지도 말입니까?》

《왜? 난 뭐 사랑이 없이 결혼이라는 문턱을 넘어선가 하오. 이때봐도 사랑에선 동무네한테 짝치지 않아. 우리의 사랑은 좀 남다른데가 있는 사랑이었어.》

《지배인동지,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들려주지 않겠습니까?》

경숙이일때문에 괴로와하는 지배인의 기분을 어떻게 전환시켜줄가 생각을 고르던 영숙은 홍철이 앞으로 의자를 바투 당겨앉았다.

《퇴근시간이 지났는데 집에는 들어가지 않구?》

《오늘은 좀 늦어도 됩니다.》

《내 이야긴 좀 비싼데...》

홍철은 너스레를 피웠다.

《그럼 값을 내야지요.》

《값까지야 뭘... 그저 이야기가 끝난 다음 내 부탁이나 들어주면 되오.》

《그야 뭐 어렵겠습니까.》

《약속했소.》

이렇게 다짐을 든 홍철은 아득히 흘러가버린 청춘시절의 추억의 세계에 잠겼다.

한때 배천땅에서 이름을 떨치던 어제날의 리사로 청부위원장인 영에군인이 되어 돌아오자 군당에서는 홍철을 료양소에 보내어 치료를 받도록 하였다.

군당에서 내여주는 차를 타고 료양소에 도착하니 아담하게 꾸린 호실이 그를 기다리고있었다.

짐을 풀고 침대에 누워 허리를 펴려고 하는데 한 청년이 들어왔다.

《이게 누구요? 홍철동무가 아니요?》

홍철은 얼떠름한 눈으로 반색을 하는 청년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차, 이거. 날 모르겠소? 내 웅진군 대기리사로 청부위원장 서명환이요.》

《미안하지만 잘 기억나지 않는구만.》

홍철이 머리를 저었다.

명환은 아쉽다는듯 한숨을 쉬었다.

《하긴 이전 기억에서 삭막해질 때도 됐지. 벌써 5년 남짓한 세월이 흘렀으니까. 하지만 도사로청열성사회의에 참가했던 일은 잊지 않았겠지?》
생각났다.

그때 홍철은 문산리대표로 연단에 나섰었다.

《그럼 동무도 그 회의에 참가했더랬소?》

《이 친구 이제야 생각이 나는게로구만. 그때 자네의 토론을 듣고 난 얼마나 감동되었던지 몰라. 북청확대회의정신을 높이 받들고 리의 야산들을 파수원으로 개조한 청년결사대원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경험토론을 하던 동무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오. 동무의 토론에 감동된 우리 농장청년들이 그 경험을 따라배우겠다고 동무네를 찾아가기까지 하지 않았댔나.》

홍철은 청년결사대 대장으로 사업하던 그 시절이

추억되어 감개가 무량했다.

그때 도안의 많은 청년들이 문산리의 경험을 따라배우려고 찾아오다보니 홍철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기억할수 없었다.

《그런 일이 있었지.》

홍철은 앞으로도 그때처럼 살수 있을가 하는 생각이 들어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인상이 왜 그렇냐? 그후에 다시 동무네 농장에 찾아갔더니 동무는 군대에 나갔더구만. 현대 여긴 어떻게 왔나?》

명환이 물었다.

《보다싶이 치료를 받으러 왔지.》

《그러니 제대됐단 말인가? 가만있자. 료양소소장이 아침부터 귀한 사람이 온다며 온 료양소를 들볶기에 누가 오는가 했더니 동무였구만. 가만, 이거 영예군인메달이 아니요. 그럼...》

《그렇게 됐네.》

홍철은 씩씩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말투가 왜 그래. 어제날의 그 결사대 대장의 패기는 다 어디로 가고.》

《됐네. 그만하자구. 난 산보나 좀 해야겠네.》
연해연방 들이대는 명환의 물음에 어지간히 지친 홍철이 웃을 갈아입고나서 문을 나섰다.

《잠간, 홍철동무. 같이 가지요.》

하는수없이 함께 걸었다.

한여름의 신록속에 묻힌 료양소는 한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신선한 공기를 한껏 들이키며 산책길을 걷던 홍철은 허리에 마쳐오는 동통에 이마살을 찌프리며 너럭바위에 주저앉았다.

《홍철동무, 옛 친구로서 내 하나 물겠는데 솔직히 대답해주겠소?》

명환이 그의 안색을 살피며 물었다.

그를 힐끔 결눈질하고난 홍철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단도직입으로 묻는다고 탓하지 마오. 혹시 친한 처녀가 있소?》

홍철은 어이없는 미소를 지었다.

《남은 심중해서 묻는데 웃긴 왜 웃소?》

《없다면 하나 소개라도 할테요?》

《할수도 있지.》

홍철은 도리머리를 저었다.

《나같은 사람에게 누가 오겠다고 하겠소.》

《차, 이렇게도 즐겼다가야. 동무가 어째서... 인물 잘났겠다, 한때는 도적으로 이름을 떨치던 리사로청부위원장이었다고 영예군인이겠댔다, 내게 누이동생이 있으면 매부 삼고싶은데 우린 아들형제만 주런이 있는게 유감이구만.》

《그거 참 안됐구만. 그런데 누이동생도 없다면서 그건 왜 묻나?》

홍철은 어딘가 싱겁게 느껴지는 그가 시답지 않

아 시들해서 말했다.

《그야 필요하니까 묻는거지. 혹시 동무에게 애인이 있다면 그 처녀에게 뽀맛을 일을 해서야 안되지 않나. 안 그래?》

《방금 제대된 내게 무슨 애인이 있겠나. 그러구난 아직 그런 생각을 가져본적도 없네.》

《듣고보니 정말 그렇군.》

명환이 고개를 끄덕였다.

《자넨 애인이 있나?》

이번에는 홍철이 물었다.

《글쎄, 있다고 해야 할지 없다고 해야 할지.》

서명환은 벌써 웃었다.

《나에게 혼시질할 땐 되게나 년장자인체 하더니.》

은근히 약이 오른 홍철이 명환을 나무랐다.

《차, 이런... 좋네.》

명환은 품속에서 사진 한장을 꺼냈다.

들쭉이 핀 언덕에서 두 처녀가 나란히 앉아 찍은 사진이었다.

《이 처녀가?》

홍철은 쌍태머리를 뺀은 처녀의 곁에 앉아 웃고 있는 나이지숙한 처녀를 가리키며 물었다.

《이 처녀 이 쌍태머리처녀의 언니야. 내가 반한 처녀지. 어때, 굵지? 내 인차 동무에게 이 쌍태머리처녀를 소개하지. 약속했네.》

며칠이 지나갔다.

홍철은 물리치료를 받고 호실에 들어왔다.

명환이와 이야기를 나누고있던 처녀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살뚱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다.

사진에서 보았던 그 쌍태머리처녀였다.

《일전에 내가 말한 동무요. 우리 농장에서 작업반 초급단체위원장으로 사업하고있지.》

명환이 소개를 하자 처녀는 김정림이라고 부른다고 하며 얼굴을 붉혔다.

처녀는 고왔다.

아니, 굵게 생겼다고 하기보다는 아름답게 생겼다고 해야 더 정확할것 같았다.

처녀에게 은근히 눈길이 쏠리는것을 감촉하는 순간 홍철은 어서 이 자리를 피해야 한다는것을 느꼈다.

《어딜 가려고 그러나?》

홍철의 행동을 지켜보던 명환이 물었다.

《소장동지를 좀 만날 일이 있어서...》

속에 없는 거짓말을 하자니 저도 모르게 말이 더 들어졌다.

《그러지 말고 앉아있게. 오늘 내가 읍사진관에 부탁해서 사진사를 초빙해왔는데 우리 이렇게 만났기념으로 사진이나 한장 남겨야지.》

《자네들이나 찍으라구. 료양소소장동지가 급히 토론했을 일이 있다면서 만나자고 해서 그러네.》

《이제보니 자넨 거짓말도 곧잘하는군. 소장동진

회의가 있어 군에 나갔어.》

그의 말대로 하는수밖에 없었다.

얼마 안있어 읍사진관에서 사진사가 왔다.

명환의 제의로 그들이 자주 가군 하던 너럭바위
우에 앉아 사진을 찍었다.

그때까지도 홍철은 이 사진이 어떤 의미를 가지
는지, 명환이 무엇때문에 이런 일을 벌여놓았는지
알지 못했다.

그리고 군당에서 홍철을 위해서 얼마나 마음쓰고
있으며 료양소소장이 이 파업을 수행하기 위해 어
느만큼 애쓰고있는지조차 몰랐다.

후날 명환이 고백해서야 홍철은 이 모든 일이 한
영예군인의 마음에 그들이 질세라 마음기울인 사람
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것을 알고 눈시울을 적
셨다....

《영숙동무, 이것이 바로 나의 사랑답이요, 내가
당을 위해 일을 했으면 얼마나 했고 조국을 위해 피
를 바쳤으면 얼마나 바쳤겠소. 그러나 당에서는 이
름없는 영예군인청년이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가기
를 위해서 사랑을 주고 정을 기울이며 오늘까지 보
살펴주고 이끌어주고있소. 오순길동무가 자기들의
결혼식을 사경굴진을 끝낸 다음에 하도록 해달라고
할 때 응한것도 실은 이런 생각이 앞섰기때문이요.
그런데 순길동무를 뜻밖에 잃고보니 그때 내 생각
이 짧았다는 후회가 자꾸만 갈마드는구만.》

홍철은 이렇게 이야기를 끝맺었다.

《자, 이젠 내 이야기도 끝났으니 약속대로 내
부탁을 들어줘야지?》

《말씀하십시오. 지배인동지!》

《다른게 아니고 오늘 문수철이네 결혼식까지 해
주고나니 경숙이 생각이 더 나는구만. 그래서 동무
가 나서서 우리 경숙이 신랑감으로 멋있는 청년을
한명 물색해달라는거요. 그래야 순길동무도 맘편히
잠들고 자기때문에 그가 잘못됐다고 자책하는 광명
동무도 마음놓고 일할게 아니겠소. 경숙이 부모들
은 한 영예군인의 마음속 고충을 가셔주기 위해 그
처럼 애썼는데 난 그들의 딸자식의 운명하나 책임
져주지 못하고있으니 이게 어디 도리가 됐소?》

《알겠습니다. 지배인동지! 제 있는 힘껏 노력
하겠습니다.》

《그래주요. 경숙인 이 전홍철의 조카딸이기 전
에 우리 종업원이요. 우리 종업원들 한사람, 한사
람의 얼굴마다에 비껴있는 마음속 그들이 깨닫이
가서져야 우리 원수님께서도 마음놓으실게 아니겠
소. 난 이것도 수령을 받드는 전사의 도리라고 생
각하오.》

《명심하겠습니다.》

여러 공정들이 현대화되어 생산적양량의 동음이
드세차게 울려퍼지고있었다.

보이라의 능력도 갱신되어 사랑, 파자생산에 필
요한 증기를 마음껏 보내주고있었다.

《어떻소? 이젠 동무네가 석탄만 더 잘 보장해주
면 종전의 생산량을 두배로 올릴수 있소.》

홍철이와 함께 공장을 돌아보던 군당위원장이 말
했다.

《석탄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군당위원장동
지.》

《동무에게서 그런 대답이 나오리라고 믿었소.
영예군인들이 정말 용하오. 도무지 불가능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거던. 그래서 나도 힘들 때
마다 식료공장을 찾아오군 하는데 올 때마다 힘이
생기는것을 느끼군 하오. 이게 다 홍철동무가 생
산에 필요한 연료를 제때에 보내주기때문이 아니
겠소.》

각이한 형태의 사랑이며 파자들이 흐름선을 타고
흘러나오는 직장을 나서던 군당위원장이 홍철에게
로 눈길을 돌렸다.

《홍철동무에게 집을 덧씩우는줄 알면서도 한가
지 더 부탁을 하고싶은것이 있는데 들어주겠소?》

뭔가 저어하는 눈빛이다.

홍철은 당위원장이 무엇때문에 갑자틀가 하고 생
각하였다.

《말씀하십시오. 우리 탄부들은 당에서 요구하는
것이던 그것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것이래도 해낼
자신이 있습니다.》

《고답소, 그럼 털어놓고 말하거요. 사실 군에
지방산업공장들이 늘어나면서 석탄을 요구하는 단
위들이 많아지고있소. 식료공장뿐아니라 도자기공
장과 건재공장에서도 그렇고 연료의 부족으로 생
산을 더 올리지 못하는 기업소들이 얼마인지 모르
오. 그래서 군당위원회에서는 동무네가 군살림을
맡아안은 심정으로 좀더 증산해줄수 없겠는가 하
는거요.》

《석탄이라면 제 어떻게든 보장하겠습니다.》

홍철은 현재 채탄장의 능력을 좀더 보강할 생각
을 하며 대답했다.

《몸이 불편한 동무에게 매번 무거운 과업만 맡
겨주는 이 군당위원장을 리해해주오.》

《전 당의 그 믿음이면 됩니다.》

홍철은 크게 심호흡을 하고나서 어제날의 병사시
절처럼 가슴을 짝 펴며 대답했다.

《인차 떠난다지. 언제부터 동무에게 주려고 했
던건데 오늘에야 주인의 손에 닿게 됐구만.》

승용차결로 걸어간 군당위원장은 운전사가 들
고있는 미술작품을 홍철에게 넘겨주며 말했다.

《고향의 바다를 몹시 그리워하는 동무를 생각해
서 미술가들에게 부탁해서 그런 우리 배천앞바다
풍경화요. 기념으로 받아두오.》

《고맙습니다. 군당위원장동지!》

《고맙다는 인사는 오히려 내가 해야 할가보요. 동무가 석탄을 제때에 생산해서 보내주고있기에 우리 군의 지방산업공장들이 용을 쓰는게 아니겠소. 자, 그럼 수고하오.》

홍철은 군당위원장이 탄 승용차가 멀리서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오래도록 서있었다.

어쩌면 고향을 떠나 멀리 탄광에서 사는 한 인간의 속마음까지도 이처럼 깊이 헤아려줄가 하는 고마움에 눈시울이 젖어들었다.

어린시절부터 고향의 바다를 몹시도 사랑해온 홍철이었다.

맑은 시내물도 흐린 강물도 모두 품어안고 오직 하나, 푸른빛으로 물들이며 노도치는 바다... 그 바다처럼 변함없이 살기를 바라는 군당위원장의 웅심 깊은 마음이 마쳐와 가슴이 후터워졌다.

손전화기에서 경쾌한 호출음이 울렸다.

홍철은 손전화기를 꺼내들었다.

경숙이가 찾는 전화였다.

《경숙이냐?》

홍철이 물었다.

《지배인동지, 광명동무가 오늘도 출근하지 않았습디다.》

생산실적과 제기된 내용을 보고하고나서 경숙이 하는 말이였다.

《광명이가?! 그래 무엇때문에 출근하지 않는지 알아봤냐?》

어제도 그가 출근하지 않았다는 소식이 왔었다.

그런데 오늘도 출근하지 않았다고 한다.

《사람을 띄웠었는데 앓는다고 합니다. 혹시...》

경숙은 그의 마음속에 또 병이 도지지 않았는가고 말하려 했을것이다.

그렇수도 있다.

이제부터는 지배인동지의 속을 태우지 않겠다고 맹세도 불갈던 그가 아니었던가.

문수철의 결혼식날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토로하던 그가 이처럼 쉽게 생각을 돌려먹을수가 있을까?

육체의 병은 약으로 고칠수 있지만 마음에 든 병은 고치기가 여간 힘들지 않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홍철은 이것이 근심스러웠다.

한동안 생각을 정리하고난 홍철은 머리를 저으며 말했다.

《그렇게 쉽게 속단할 문제가 아닌것 같구나. 내여기 일을 다 보고 오늘 밤에라도 출발하겠으니 네가 일이랑 준비해가지고 한번 찾아가보도록 해라. 그렇게 해다오.》

통화를 마치고나서도 광명이에 대한 생각으로 머리가 착잡했다.

홍철이 탄 차는 전조등으로 길을 밝히며 밤새

워 달렸다.

등반이에 몸을 맡긴 홍철의 머리속에는 군당에서 받은 과업을 수행할 방도와 함께 광명이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차있었다.

새 과업을 수행하자면 결정적으로 광명이가 굴진을 맡아주어야 했다.

수철이는 나이나 경험으로 봐도 아직 미숙한 점이 많았다.

차는 정오가 가까와올무렵에야 기업소마당에 들어섰다.

차에서 내려서기 바쁘게 경숙을 찾은 홍철은 광명의 집에 다녀온 사연부터 먼저 물었다.

경숙이 광명이네 집에 다녀온 결과를 요약해서 보고했다.

《차에 타거라.》

홍철이 차문을 열며 말했다.

《지배인동지, 먼길을 오느라 힘들겠는데 제가 데려오겠습니다.》

경숙이 만류했다.

《아니다, 광명이는 내가 가야 일어나. 그건 내가 잘 알아.》

차는 오던 길을 되돌아서 탄광마을로 질주했다.

지배인이 들어서자 침상에 누워있던 리광명이 성급하게 자리에서 일어서며 어서 이불을 거두라고 안해에게 눈짓했다.

《사람이 그러면 못쓴다. 한번 믿었으면 끝까지 믿어야 인간이고 한번 다진 맹세를 지켜 한생을 함께 가서 동지가 아니겠냐. 난 광명이에게서 무엇보다 이게 섭섭하구나. 병을 만났으면 말을 해야지. 어서 옷을 입어라.》

《지배인동지에게 어떻게 또 부담을...》

광명의 흐느낌소리가 방안을 가득 채웠다.

《그런 웅졸한 심장을 가진 녀석이 어떻게 지금껏 암벽을 밀었는지 모르겠구나. 팡속 천리길을 가는 탄부의 심장은 석탄처럼 뜨거워야 하는거야. 그래서 탄부지. 그렇지 않냐?》

도인민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끝내고 기업소로 돌아온 홍철은 사무실로 그를 이끌고 들어갔다.

《오늘부터 여기서 나와 함께 살자. 넌 내곁에 있어야 병을 털어버릴수 있어.》

《지배인동지.》

홍철은 광명이와 함께 군당위원장이 준 미술작품을 벽에 걸었다.

홍철은 자기같이 평범한 영예군인도 나라의 영웅으로 내세워준 위대한 품을 한생을 다 바쳐 따르고 받드는 바다가 되고싶었다.

고향의 언덕에서 어린 마음에도 매혹된 심정으로 바라보던 바다처럼 우리 원수님을 받드는 길에 단 한명의 뒤떨어진 사람도 없게 정을 다해 품어안고 하늘땅 끝까지 가고싶었다.